

변하지 않는 언약 (창세기 17:1-19)

▶ 인생의 답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중요한 답을 얻기 바란다.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다. 인간에게 필요한 게 참 많은데 하나님이 언약 하나를 딱! 주신 것이다. 왜냐면 인간에게 저주가 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저주에서 건지기 원하셨다. 그래서 이 언약은 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해결한 자이다. 우린 이걸 답으로 잡지만 하면 살아난다. 그래서 실수하고 원죄를 지은 아담에게 언약인 창세기 3:15를 주셨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꺾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아담은 이 말을 굉장히 잘 이해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했을 것이다. 왜 뱀의 머리를 깨야 하는지 완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사단에게 속아서 이 문제가 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15장이 아담에게는 완전 답이 되었다.

▶ 지금 사람들에게 죄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문제에 유일한 답이라고 하면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 언약은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죄 때문에 일어나 모든 문제의 답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자 완전한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답이라고 말한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로 답인 증거라는 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이것은 우리 삶속에 꼭 나타나야 한다.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가? 믿고 누리고 잡고 있으면 증거가 나타난다. 우리는 응답을 많이 받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참으로 귀하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언약을 바로 알게 되면 기도 응답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기도는 전과 같거나 때론 저보다 더 부족하게 하는데도 응답이 많이 달라진다. 그만큼 기도가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원죄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 응답 없이는 못 산다. 그 응답이 언약 안에 약속되어있는 것. 이 사실을 알면 응답이 달라지고 이젠 노력이 아닌 깨달음이다.

▶ 오늘 본문도 언약을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필요한 건 아들인데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언약이다. 그래서 우린 본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언약의 비밀을 깨닫기 바란다.

1. 변하지 않는 언약

▶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한번 하면 그건 언제나 살아있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나 일 때문에 바뀌는 법이 없이 처음과 동일하다는 뜻이다. 히브리서 13: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다. 이게 그리스도이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16장에 아브라함의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다. 창세기 17:1에 보면 아브라함이 구십 구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대단한 말씀을 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만 보면 내가 어떻게 완전하지? 아주 무서운 말씀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는 전능하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또 저지르지 말라는 뜻이다.

창세기 17: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 아들 낳는 게 큰 관심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주셨다. 나와 내 사이에 내 언약을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처음하신 약속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기쁨을 부으신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사례도 이런 응답을 받았다. 사례는 여주인, 공주 이런 뜻이다.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둘다 열국의 어머니 아버지란 이름으로 바꾼 것이다. 그것도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

창세기 17:11~12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 이것은 굉장한 의미이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표징이 있다? 있고 없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창세기 17:14에는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다. 왜?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므로! 아주 중요한 표징이 된다. 참고로 지금은 이런 것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보혈의 증표가 들어있다.

▶ 이 이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언약적 의미가 있고 할례가 받는 것도 중요한 언약적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것과 함께 그 속에 숨겨두신 메시지가 한 개 있다. 그게 뭐냐면 잊지 말라! 너는 내 언약을 잊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잊지 마라! 하는 것이다. 그걸 잊어버리고 또 이스마엘을 낳는 일 같은 건 하지 마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 이 약속 이제 잊어버리지 마! 이것을 위해 잊어버리지 말라고 몸에 증표를 남기셨다. 이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나? 손이나 어디든 이런 표징이 하나 있다면?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과 이름을 바꾸는 것은 24시의 개념이다. 이름도 이제 바꾸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너는 지금 아들 하나 없지만 반드시 열국의 아버지가 될테니 잊지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이렇게 해서 또다시 실수 하지 말라는 것이다.

▶ 이스마엘을 낳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문화로 이해는 된다. 사람들은 이해하고 세상은 받아들일만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그러니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다. 즉 인본주의인 것. 그것은 언약 밖이다. “그런거 하지마 이제!” 하셨다. 이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이다. 우리도 기도해서 응답이 지연되면 생각이 많지 않겠나? 그리고 사람 수준이나 결정을 하기 쉽다. 여기에 대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언약은 변하지 않으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마! 너가 잊어버릴까봐 내가 이름 바꿨어! 그리고 몸에 징표도 남겼어. 앞으로는 언약을 벗어나는 결정을 하지 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여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다. 내 언약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당신의 언약대로 정말 하셨다.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든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했으나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다.

창세기 17: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 창세기 17:21에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네 아들이라고 했고 그 아들을 통해 그 씨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때론 이 언약을 어려워도 지켜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근본 언약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인도 받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우선 그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잊으면 안 된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성취하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 세계 복음화 하는 큰 축복이 있기 바란다. 오늘 첫 번째로 내 언약을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2. 언약은 성취된다.

▶ 언약은 우리가 불신앙을 해도 성취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한다고 했다. 자식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희망을 가졌을 수 있겠지만 표현상으로는 아브라함은 포기 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안 믿었으니까 불신앙이다. 그가 관습을 따라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본주의인 것이다. 속에서는 믿음이 있었을 수 있으나 밖에서 나타난 거 보면 불신앙을 떠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불신앙 했다고 말해도 아브라함은 할 말 없는 것!

▶ 창세기 18:12절에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자긴 노쇠하고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며 포기하였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포기한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름도 이삭이라고 이미 정했고 내년 이 시기가 될 것이라고 기간까지 정해주었다.

▶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믿어야만 하나님이 응답 하신다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믿지 않으면 응답 안하신다?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결과는 종교에 가버린다. 왜냐면 내 중심이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거면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종교다. 사람은 믿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있다. 홍해를 가를 때 믿은 사람은 모세 뿐이었고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돌아가자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인간 중심이 아니다. 믿음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사람의 믿음이 꼭 필요하신 분은 아니다. 본래부터 언약은 하나님 것이었고 그분이 이루고 완성하셨다. 인간은 사실 거기에 관계가 없던 것이다!

▶ 창세기 15장에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햇불로 지난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끼지 못했다. 그래서 쌍방이 아니라 한쪽만 약속하였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내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위하여 있다는 말!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이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의 내용이다. 이게 언제 나온 말씀인가? 제자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항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

신 말씀이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들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고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물론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은 다르다. 안식일이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다.

▶ 언약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최고로 좋다. 언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가지고 살면 우리가 좋다.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우리 믿음이 사실 상관없다. 모든 일을 처음 계획하신 그대로 진행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 아무도 막을 자는 없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은 도와줄 수 없다.

▶ 신자는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귀한 생각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개인적으로 귀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아니다.,

▶ 아브라함처럼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폐만 끼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만 받고 있을 뿐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신앙해도 사실 하나님에게는 관계없었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이해해주셨다. 그리고 약속한 그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걸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전능하니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 언약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아무도 막지 못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는 늘 불신앙 하고 달라고만 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고 주신 축복에는 변함이 없다. 얼마나 감사한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니!

▶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다. 여정을 통해 가진 아들은 있지만 어쩔수 없이 가진 거지 마음에 들었겠나? 진짜 아들이 필요한데 나이는 들었고 아무리 봐도 불가능 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믿은 것도 없고 사실 불신앙 했는데? 이게 언약의 은혜이다. 언약은 굉장한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이해와 용서, 자비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마음에 생각해야 한다.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몸에 표시를 해서라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언약 밖의 결정은 하지 마라. 창세기 17장을 보면 16장을 통해 17장이 온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기 바란다.

▶ 우린 때로 실수를 많이 한다. 부족하니까 믿음도 없고... 조금만 일 생기면 불신앙 해버리고 그런다. 그렇게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오늘 우린 다시 한 번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새출발 하자! 다시 한 번 언약 잡고 새 힘 얻고 새출발 하기 바란다.